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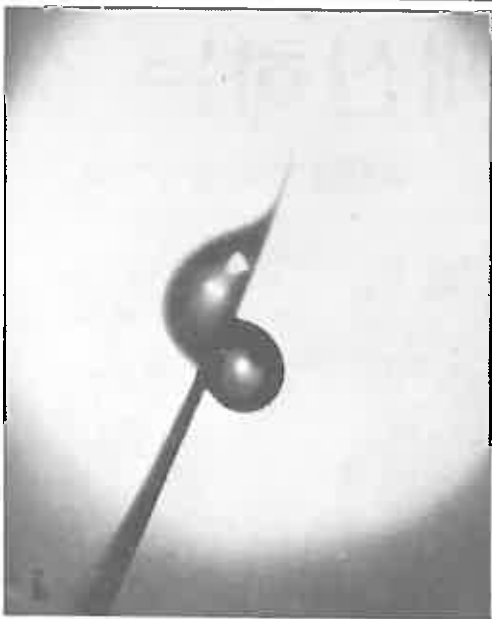
*Thanks of Your Pastor*

#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傳道出版社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빌2 : 21).

그러나, 우리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소유입니다(롬4 : 7~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고전 6 : 19~20).

##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들

어떤 위대한 진리는 한 사람의 전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때가 있다. 여러 해를 그저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 마치 우연한 것처럼 영감을 주는 구절이나 글을 대하게 됨으로 그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의 삶의 향로가 그 때부터 완전히 변화된다.

허드슨 테일러 형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를 무심코 뒤지다가 우연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글귀를 읽게 되었다. 그 말씀의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남은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는가?”고 그는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는 빛과 평안이 넘쳐났다. 그 후 얼마 있다가 그는 중국에 건너가서 복음의 문을 열었다.

진젠돌프 백작의 경우도 그러했다. 젊은 독일 사람인 그는 어느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진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노라!”

진젠돌프 형의 마음은 그 진리에 산산히 부서졌다.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모셨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러한 글이 또 쓰여져 있는 것을 읽었다.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심금을 울리는 그 물음에 다시 감동된 그는 사랑어린 심정으로 자기 생애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렸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모라비아 선교 운동의 년대기 속에 빛나고 있다.

디. 엘. 무디 형의 경우도 그러했다. 그가 영국에서 대 전도집회를 마치고 저명한 영국의 전도자 헨리발리 형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발리 형은 무디 형에게 작별의 격려로서 이런 말을 해주었다. “무디 씨, 세상은 아직도 하

나눔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무디 형은 그 굉장한 말을 자기마음 속에서 흐려버릴 수가 없었다.

그 말은 그의 뇌리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그가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대양의 파도 위에나, 뉴욕의 거리를 걸을 때에 그 길바닥 위에나, 그리고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올 때에 풍경 위에나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듯 눈에 아른거렸다. 그 말이 그 후 그의 전 생애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그가 한 수고의 범위나 결실은 분명하지 않는가!

이 밖에도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심한 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에도 사람들이 의지하여 사는 크나 큰 진리를 만난 것이었다. 그들은 그 진리의 논리나 감격스러움에 사로잡혔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불태운 것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이었다. 하나의 크나 큰 진리에 감화를 받고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을 세웠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온전히 변화시킨 똑 같은 심오한 진리는 우리를 평범한 삶에서 건져줄 수 있고 현재와 영원을 통해서 길이 남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상의 진리들 앞에 정직하고 대담하게 나설

마음만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때까지 끈기있게

생각할 마음만 있다면!

합리적인 태도를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열렬하게 매진할 마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영화로운 인

생관을 좇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한다.

- \*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있는가?
- \* 나는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순종할 뜻이 있는가?
- \* 주님을 위해서 단념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한가지라도 있는가?

## 단 한번의 생애

지상에 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지상에서 단 한번 밖에 살지 못한다는 놀랄만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준엄한 필연의 현실 곧 단 한번의 생애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역사한 위대한 동인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9장4절에 말씀하신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매” “밤이 오리니” “단 한번의 생애”

이상의 경구(警句) 들이 불에 빨갛게 달은 석불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찢러 불태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없게 된다면! 단 한번의 생애! 오직 한 생애! 극히 엄숙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애의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값어치는 어떠한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은 실로 우리에게 무한히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기 인생에 가격표를 달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은 요한이나 유다나, 바울이나 빌라도가 된다/ 선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고, 가치있게 되거나 무가치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거나 불행하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상의 사실들에 사로잡힐 때 삶은 하나의 성스러운 신탁(信託)임을, 삶은 절대 허비되어서는 안되며 최선의 가능한 쓰임에 헌신되어야함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짧고 죄는 현실이기에  
인생은 허비할 것 못되노라.  
사람의 년수는 나무잎의 떨어지는 것,  
떨어지는 눈물방울이기에  
허비하며 소일하기는 너무 짧은 인생이라  
이 세상에선 진실해야 할뿐이다.  
많잖은 인생, 오직 한번이 있을 뿐—  
그렇다, 한번, 오직, 한번뿐이라,  
그 한 인생—그 좁은 막간!  
얼마나 성스러워야 할까다!  
축복된 수고로 채워져야 할 나날,  
시간 시간은 새로운 생산을 낳아야 할 뿐이라.  
-H. 보나

“많잖은 인생!” “한번, 오직 한번!” “그 좁은 막간!”  
C.E. 타쌘 이 한 생애의 성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흔히 들던 예화가 하나 생각난다.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시장보러 나와 식료품을 다산 후에 딸에게 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얼마 주었다고 한다. 이 소녀는 유리로 된 진열 상자 앞에 서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것 저것 열심히 눈여겨 보았다. 처음엔 어느 상자 속에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 주세요”라고 했다. 점원이 그것을 꺼내려하는 순간 그 소녀는 다시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그것 말고 이것으로 주세요”라고 했다.

결정을 짓지 못한채 여러번 그렇게 하자 화가 난 어머니는 “애야, 어서 살것을 정하려우나” 하면서 책망했다. 이 말에 대해서 그 소녀는 아주 제치있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엄마, 돈이 하나 밖에 없지 않아요!”

“돈이 하나 밖에!” “단 한번의 생애!” 꼭 그 생애를 현명하게 쓰도록 하라.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제국의 죠지 5세는 그러한 목적으로 자기 책상 위에 표어를 붙여 놓았었다고 한다. 그것은 19세기의 스티븐 그뤼펠씨가 쓴 것인데 이런 것이었다.

“나는 이 세상을 오직 한번만 산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친절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지금 한다. 나는 그것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다시 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오직 단 한번의 생애라는 진리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가서자. 그리고 정직하게 이러한 자문을 해 보자“현 내 활동과 포부가 오직 단 한번의 생애라는 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가치있는 것인가?”

### 그렇게 매우 짧막한 인생

만일 인생이 오직 단 한번 밖에 없다는 진지한 명상이 놀랄만한 가치로 채워진다면, 하물며 그 인생이 그렇게 매우 짧막하다는 생각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인생이 단 한번 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도 그것이 천년, 오백년, 혹은 심지어 이 백 년 동안 계속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주는 긴박감은 똑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백년 후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실은 대부분이 그 반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그 초로와 같이 신속한 인생에 충격을 받지 않을 자 누가

있겠는가?

그대는 얼마간 살기를 바라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평균 수명은 70세이다(시 90 : 10). 우리 잠시, 우리가 70년 산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우선 우리는 70년에서 현재 우리의 나이를 빼야 한다. 그러면 그 답은 우리가 앞으로 살 년수가 된다. 그러나 그 년수에서도 우리는 잠자는 시간,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병상에서 보내는 시간, 그 밖에 우리가 필요불가결하게 보내는 시간을 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시간은 얼마나 남았는가? 그 대답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일 것이다.

성경은 언어를 총 동원하여 인생이 초로임을 묘사하고 있다.

모세는 인생을 잠에 비유하였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욘은 인생을 베를의 복에 비유하였다.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와 같이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인생을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급속히, 무정히 인생은 왔다가 가버린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찬란한 기회들도 가버린다.

장의실, 영구차, 묘소는 다같이 이세상에서 영구히 살려고 하는 듯한 우리의 무사태평한 생활태도를 비웃는다. 단 하루도 침대와 판이 똑같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는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바램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삶의 불확실에 대한 주장은 한층 더 강화될 뿐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사람들은 최소한 수 십년 산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까닭에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는 단 한 시간이라도 기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현상과 도덕적인 부패는 하나님의 예언과 더불어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아래와 같은 것을 뜻한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낭비할 시간이 한 순간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매 순간을 신성한 위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 시간을 무한히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을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시 직면한다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어느 한 노예 소녀는 그의 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주인님, 주인께서 꼭 죽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매일 그 피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아침마다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 우리도 “단지 찰막한 한 순간을 위해 태어난, 쇠퇴해 가는 진흙으로 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도 영원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시간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낭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슬픔을 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의지가 죽든지 살든지 주께 복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평생에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내 평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신 때, 그리고 원하시는대로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면, 내게 있어 살거나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겠나이다.”

오늘을 위한 그대의 계획은 그리고 내일과 다음 날들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 영 원

만약 시간의 근소(僅小)함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하울머 영원의 무한함은 얼마나 더 놀랄만한 것인가? 언어에 있어서 영원에 대한 이 낱말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은 별로 없다. 이 낱말의 난해성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저 창세 이전의 때, 그리고 천사들도 창조되기 전 그 시대, 그리고 하나님 이외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었던 때를 뒤돌아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계속해서 시작없는 태초로 뒤돌아가 생각해 보라. 뒤로, 뒤로, 뒤로—돌아가 보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다. 그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대의 마음을 미래로 옮겨—이 지구가 없어진 후, 죄가 사라진 후, 시간이 끝난 후를 상상해 보라.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영원히, 영원히, 무한히, 무한히, 무한히 내다 보라.

그리고 그대의 두뇌가 그 좁은 한계를 넘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대가 영원히 살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 보라. 영원히, 영원히!

사람들이 이 영원의 뜻을 포착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던고! 헨드릭 반룬씨는 아래와 같은 대표적이면서도 못 다 표현한 예화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스위스잔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북쪽에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다. 그 바위의 높이와 폭은 각각 100마일이나 된다. 천 년 만에 한번씩 조그만 새가 이 바위에 날아와서 자기의 주둥이를 날카롭게 베풀고 간다. 이렇게 해서 그 바위가 달아 없어진 때 영원의 하루는 지나간 것이다.

로우랜드 덕슨 씨는 그 영원을 이런 방식으로 묘사해 보려고 애썼다.

대양을 달리는 커다란 기선을 타고서 골무에 끈을 매어 그것을 기선밖 물 위에 떨어뜨려 대양에서 취한 물이 가득 찬 뒤 끌어 올려 보라. 이것이 영원의 대양에서 취한 시간을 말해 줄 것이다.

영원은 해안이 없는 대양이다.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이다.

영원은 영원히 현재하는 그 순간이다.

영원은 하나님의 생존시간이다.

언어까지도 그 개념의 비중에 탄식하는 것 같다.

현생은 영원의 무한대한 모래 사장 위에 깔려져 있는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라도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사람의 전 생애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는 영원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밀란 사원에는 세 개의 문이 나란히 달려 있다고 한다. 첫째 문 위에는 이러한 비명을 아로 새긴 장미화관이 있다고 한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은 다만 일순간에 불과하다.” 셋째 문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은 다만 일순간에 불과하다”고 써어져 있다. 그리고 가운데 문 위에는 이러한 경구가 있다.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은 영원의 실재를 꼭 잡고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영원의 무서운 현실과 은밀한 대화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설 때 우리의 두 눈에는 색다른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는 색다른 결의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시간 안에서 끝나지 않게 하겠다는 결의 말이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다.

### 소중한 시간

삶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자 하는 젊은 성도들이라면 청년기의 시간이 매우 보배로운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청년기는 사람의 능력이 가장 크며, 사람의 지성이 가장 예민하며, 사람의 정열이 가장 충만한 시기이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2장 2절에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다.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활발하지 못한 늙은 고양이에게 보다는 재치있게 뛰어노는 고양이 새끼에게 마음을 더 빼앗긴다. 목장의 망아지가 비둔한 말보다 우리의 시선을 더 끌어간다. 우리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지 어린이들에게 마음이 이끌릴 뿐아니라 은근히 바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늙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젊은 시절의 넘쳐나는 우의와 젊은 사람들의 첫사랑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의 힘, 열의, 담대함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의 물뿔을 가리지 않는 헌신, 열정적인 봉사, 의식적인 자기 부정을 기억하신다.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청년기는 업적을 남기는 시기이다. 로마 시인 버질씨는 라틴어 시인의 선두에 섰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대군을 선두 지휘했고, 뉴턴은 탐험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그들이 설흔 살이 되기 전이었다. 스물 여덟 살이 되기 전에 헤로도투스는 올림픽 대회에서 아홉 권의 역사 책을 암송했고, 한니발은 스페인을 칼타고의 무력 앞에 굴복시켰다. 스물 다섯살이 되었을 때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의 대 웅변가가 되었고, 시세로는 로마의 웅변가가 되었다.……스물 다섯살 때 요나단 에드워드 형과 조지 화일철드형은 전도자들 가운데 제일인자들이 되었고, 설흔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혁명할 복

음을 외치셨다.”

—A. T. 피얼슨

반면에 노년기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소모된 때이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체중으로 인해 흥청거리는 시기이다. 잇빨도 몇 개 남지 않으며 눈은 원근 양용의 두 초점 렌즈를 의지해야만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귀는 보조 청각기를 필요로 하고, 음성은 떨리며 거칠어 진다. 노쇠와 더불어 불면증, 공포증, 식욕부진 및 전신적 쇠퇴가 온다. 노년기는 권태기이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청년의 때는 구원과 관련해서만 아니라 봉사와 관련해서도 주님을 기억할 때인 것이다.

만약 젊은 성도들이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후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한 젊은 성도의 간증은 다른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남자다운 용기와 진지함에 이끌림을 받는다(하지만 이것은 노년층에서는 광신적인 취급을 받는다). 젊은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의 도전에 기꺼이 응한다. 하지만 노년과 더불어서는 싸움에 대한 경계와 공포가 온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느 때—돈을 다 벌여 놓고나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다른 말로 하면 늙어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애를 계획한다.

하나님은 방탕한 생애의 찌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며 모두를 원하신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셨다. 하나님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서 주름잡힌 것, 노쇠한 것, 낡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 그럴 수 없다.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젊음이다.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스물 일곱살의 젊은 피터 홀레밍의 마음을 불태운 것도 바로 이런 생각이었다. 그 영혼의 거룩한 결의는 그리스도께 젊음의 가장 귀한 소산인 사랑과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그가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가 가사에 잘 묘사되어 있다.

나의 전력 나의 정성 주님 위해 있습니다.  
 즐거움이 넘쳐 날 때 주님 노래하리이다.  
 세상 사랑 간데 없고 주님 사랑하옵니다.  
 나의 힘이 약해져도 주님 봉사하리이다.  
 세상 일로 분주하여 등분서주 안하리다.  
 하늘 성산 오를 때엔 날개 달고 가리이다.  
 약한 마음 천한 마음 어찌 주께 드릴손가  
 식은 정열 마음 찌기 어찌 주께 드릴손가  
 나의 청춘 받으소서 내 기쁨 취하소서  
 청춘 영화 마음 충만 주님 위해 있습니다.

방탕한 젊은 날의 비극을 메꿀 수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각자는 스스로 물어보자. 내 젊은 시절의 전기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 뜨뜨미지근하고 흐리멍덩한 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생애의 열렬한 전기가 될 것인가?”

명심하라! 지금, 그대의 전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 **그대의 미래를 선택하라!**

그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그대에게 충격이 되겠는가? 현생에서 그대는 그대가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된다. 가

령 그대가 어떤 직업을 골돌히 원한다고하면 그대는 심중 팔구 그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 널리 알리 워질 가치가 있는 매우 귀중한 비밀이다. 그대가 그대의 내일을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느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의 소원은 부와 재물과 영화와 승리와 장수와 더불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는 질문이 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얻는 것이다.

로즈베리 경은 젊었을 때 세가지의 불타오르는 포부를 가졌었다고 한다.

- ① 그는 더어비 경마에서 일등하기를 원했다.
- ② 그는 백만장자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 ③ 그는 수상이 되기를 원했다.

역사는 그가 위에 열거한 세가지 포부를 다 달성했었다고 전하고 있다.

수년전에 한 청년이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 자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시편 145 : 19의 약속을 아뢰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 ① 많은 성경 말씀을 암기할 수 있는 축복
  - ② 전도지를 써서 많이 배부할 수 있는 축복
  - ③ 전도지를 무료로 많은 사역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축복
  - ④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축복
  - ⑤ 신자들의 덕을 위해서 신령한 글을 쓸 수 있는 축복
- 탐 올선 형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성경 암기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경을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했고, 그가 잡지에 기고하는

글들은 널리 읽혀졌고, 그가 쓴 전도지들은 아마 제일 많이 보급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청년은 누구나 이와 같이 될 수 있다. 미래는 청년들 앞에 백지로 놓여 있고, 거기에 무슨 글을 택하여 쓰든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곧 선택에 있어 조심하라는 교훈이다. 그대의 선택이 낳는 결과는 참으로 크다. 선택에는 최후성이라는 무서운 것이 있다.

쇠불이의 용해액이 용광로에서 흘러 나갈 때 그 액체는 어느 모형(模型)속으로 흘러들어 간다. 그러나 그 액체는 곧 식어 굳어져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다.

만약 청년남녀들이 그들의 청년 시절의 가능성들과 조기 선택에 걸려있는 문제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청년기의 낭비와 노년기의 후회가 크게 감소될 것이다.

자신들을 단순히 행운의 저당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숙명론자들이다. 그들도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 선택은 그저 표류되어 가는 것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청년들은 그들의 엄숙한 입장과 선택의 귀중성에 눈이 띄어야만 한다. 청년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 가치있는 선택인가의 여부에 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그대에게 “네가 현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묻고 계심을!

### **그대의 포부를 점검하라!**

가치있는 인생의 포부란 무엇일까? 어떠한 생애가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오분 후에 가장 값있는 것으로 나타



날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투자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한 길이란 무엇일까?

우선 “부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수 있는 적합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할 용의가 있는가?

- ① 주님께서 친히 금하신 것이므로(마 6 : 19) 그 잘못에 있어 부도덕이나 살인죄와 다를바가 없다.
- ② 재물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절대적 장애가 된다(막 10 : 23, 24).
- ③ 재물은 기만적이다(막 4 : 19). 겉으로 보기에는 영구적으로 있을 것 같지만 신속히 또한 뜻하지 않게 없어지는 것이다.
- ④ 우리의 모범이신 주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셨다(고후 8 : 9). 주님은 한결같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함을 역설하셨다(마 10 : 24, 25).
- ⑤ 재물은 하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다(고후 4 : 18)
- ⑥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변에서 가난과 궁핍을 보면서 그냥 재물을 쌓아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도덕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온타리오 일간 신문에 기재된 적이 있었다.

“고(故) 존 리빙스톤 씨는 그가 죽을 때 온타리오 주 퍼쓰군에서 제일가는 부호이었다. 그의 재산은 50만불에 상당했고 거기에서 그의 생명 보험금이 50만불이나 되었다. 그는 저 유명한 아프리카의 최초선교 개척자 데이빌 리빙스톤의 형제이었다.”

이 두 형제는 소년 시절에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집에 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선택했다. 존은 말하기를 ‘나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다. 반면에 데이빌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아프리카의 오지(奧地)에 뚫고 들

어가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투신했다. 세상의 표준으로 판단할 때 존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데이빈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 심히도 근시안적이다. 왜냐하면 비록 존이 사업에 성공을 하여 큰 재물을 쌓았고 데이빈은 아프리카에다 자기의 생애를 파묻고 일하다 외로운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을지라도 오십년 내지 칠십오년 후에 남은 결과라는 것은 존의 이름이 지구상에서 거의 없어졌으나 데이빈 리빙스톤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도처에서 향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구만이 유일한 유혹물은 아니다.

또 하나의 삶의 강한 욕구는 유명해 지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이 되어 명성을 얻고 유명해 지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사업이나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 그들은 거기에 모든 정열을 쏟는다. 그들은 사업이나 과학의 전당에다 머리를 숙인다.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이 택한 분야에서 성공을 쟁취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렘 45 : 5).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계에서 명성을 떨쳐 보고자 한다. 그들은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용기를 북돋고자 많은 희생물을 기꺼이 받는다. 그리고 시합장에 나가면 우승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든 끈을 졸라매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여호와와는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오”(시 147:10)

하나님은 스포츠의 신봉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단련이 주는 유익은 단지 현생 뿐이지만 경건은 현생뿐 아니라 영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딤후 4 : 8).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 역사 및 음악 등의 어떤 특수 지식을 전공함으로써 명성을 떨치고자 한다. 그러나 형언 불능의 비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거나 전혀 소용이 없게 될 학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자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포를 도우려는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정치나 사회복지 및 어떤 형태의 지역 사회개발에 몸을 바친다. 이 사람들은 이상에 열거한 사람들 중에서 이기주의적 사상이 제일 적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일러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지만 그들의 이타주의적 사업도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돕고 그가 당면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그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이상적 사업 중 어떤 것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오직 복음만이 그 해결책인 것이다. 가장 참된 자선 사업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일들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가장 숭고한 노력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그것은 효력이 없고, 둘째로 그것은 시간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의 시간적 가치는 단지 현생에만 국한된다. 그 일들은 두 세상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두 세상을 생각에 두고 살지 않는 삶은 그 참된 의미를 찾지 못했다. 현생과 내생 / 백말이 되어 내생에 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백말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생애를 불신과 저속과 이기주의와 편협심으로부터 되찾아 믿음과 정의와 고결에 이르게하고 또 그들의 생애가 두 세상에 속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권유하

고 싶다. 두 세상 / 그렇게 짧은 금생과 끝이없는 내생 / 저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일시적인 것, 무상한 것을 영원의 결과와 가치로 승화시켜 주는 질문이다. 내가 오늘 행한 것은 영원토록 나를 위한 유익한 일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나는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윌리엄 켈리 형은 저명한 성경 학자였다. 그의 성경 지식과 심오한 영적 생활은 그로 하여금 지난 세기 말엽 영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했다. 켈리 형은 친척의 한 청년을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도록 도와준 것이 인연이 되어 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 교수들은 켈리 형을 초빙하여 자기들 대학에 와서 교수직을 맡으므로 명성을 떨치라고 강력히 권하였다. 그러나 켈리 형이 도무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당황해 했다. 교수 중 한 사람은 못마땅하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만 켈리씨, 선생께서는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켈리 형은 이렇게 재빨리 대답했다. “어느 세상에서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 우리의 삶의 포부를 점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역시 “어느 세상에서 말씀이십니까?” 그것이다.

그대의 현 포부가 이 질문의 점검에 합격 될 것인가?

## 그리스도인의 의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분별있게 생각하려면 크게 세 가지의 지침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1. 하나님께 대한 의무
2. 이웃에 대한 빛
3. 최상의 이익

이 세 가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자기는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 네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창조자이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뢰와 쇠하지 아니하는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러나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회피할 수 없게 한다.

우리 각인은 다음과 같은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 ① 하나님은 크신 자비로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셨다.
- ② 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더럽고 부끄러운 세상에 내려오셨다.
- ③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고난 당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 ④ 죽으신 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 ⑤ 내가 원수였을 때 그 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 ⑥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너무나 커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⑦ 그분은 나를 죄의 노예 시장에서 피 흘려 사실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
- ⑧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쉽게 상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희귀한 경우에 그 사실들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완전히 압도되어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게 된다.

나를 위해 그가 이렇게 하셨으니  
 나를 위해 그가 이렇게 하셨으니  
 어떻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아끼랴!  
 어떻게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살지 않으랴!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전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 15).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씨·티·스탈 형은 이 밖에 다른 결론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님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되찾아 오는 것을 뜻한다. 고로 내가 그분께 속했다면 나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흥친자가 되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나 해야 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자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아이삭 왓츠 형은 이 놀라운 이치를 흔히 부르긴 하나 별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찬송사에서 나타냈다.

자연계의 전부가 내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드리기에는 너무 작은 것,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거룩한 사랑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전부를 요구하신다.

진젠돌프 백작은 말했다. “내가 만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께 합당치 않은 자일 것이다.”

그리고 우간다의 필킵턴 형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만일 그가 왕이시라면, 그는 모든 것에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몇 해 전에 티·이 윌슨 형이 앙골라에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한 건강한 사나이가 청중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데리고 있었다. 그 사나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소년은 공포로 움찔움찔했다. 집회가 끝나자 그는 곧 그 소년이 그 사나이의 노예라는 것을 알았다. 즉시 윌슨 형은 그 소년을 사려고 흥정을 시작했다. 그 주인은 값을 올리기 위해 입씨름을 했다. 그러자, 값이 만족스럽게 타결되자 주인은 마침내 그 소년을 팔았다.

윌슨 형은 그 노예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올 때 그 소년이 전 주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집에 다달았을 때 그는 그 소년과 함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나의 소유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너는 장클로 되돌아가 네 민족과 더불어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내 집에 머물러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살 수도 있다.”

소년은 윌슨 형의 말이 참말인 것을 깨달자, 곧 울 것 같은 눈으로 그 선교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윌슨씨, 나는 영원히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 밖에 무슨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주 예수님, 저는 영원히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의 손, 저의 발, 저의 음성, 저의 지력(知力),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빛진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로마서 12:1, 2)

## 네 이웃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번째의 의무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의무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지혜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공히 무거운 빛을 쬐다는 생각으로 수고한다(롬 1:14). 기독교는 구령에 대한 열정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고 외치는 신비한 의무감에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전한 젊은 그리스도인이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지 않고서는 생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① 우리의 이웃은 멸망해 가고 있다.

하루에 수십 만의 사람들이 죄와 멸망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채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고 있다.

② 비길 데 없는 하늘 나라의 즐거움이 구원얻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지옥의 슬픔이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모름지기 조용히 앉아 한 시간 동안 지옥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 영원함, 그 후회, 그 어둠,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머지 않아 거기에 갈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 그리고 도처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명목뿐인, 판에 박힌, 자기 만족에 빠진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 만약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완전히 버려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암의 치료법을 알고서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살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치료법을 알고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영혼에 대한 살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불이 켜질지 모를 어두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등이 되기를 거부할 것인가?

4 이 세대의 인류는 오직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구조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다른 이들에게 전가 될 수 없다.

5 우리는 주님의 큰 분부에 대해서(마 28 : 19, 20)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영혼들의 얼룩진 피의 옷을 입고 주에게 가겠는가?

6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구주의 면류관에 박힐 수 있는 잠재적 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들을 바로, 그리고 용감히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生)의 항해에서 진로를 벗어남을 면할 수 없다.

## 네 자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의 계획은 우리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짜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언뜻 보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최선의 것을 가지도록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살가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현생과 내생에 대해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의 사

실들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 ① 그대의 영혼은 구원 받을지라도 그대의 삶은 실패할 수도 있다.
- ② 현생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영원에 대한 투자에 불과한 것이다. 일생의 기간은 통치의 기간을 위한 훈련 기간이다.
- ③ 그대는 그대가 죽은 후에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그대의 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 에프·더블유 보어함 형은 말하기를 사람이 자신의 무덤에 누워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직한 일을 준비해 두는 것은 각 사람의 의무라고 했다.
- ④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 생애만 보람 있는 것이 될 것이다.
- ⑤ 그날에 빈 손으로 서게 되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가야 한단 말인가.

빈 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이렇게 뵈온단 말인가.

한 날도 주님께 드려 보지 못하고

상품 하나 주님 발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가야 한단 말인가

빈 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구주를 이와 같이 뵈어야 한단 말인가

한 영혼도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빈 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 씨·씨·루터

- ⑥ 주님의 “잘하였도다”란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구도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다른 쪽 길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손실 외에도 손실이라면 얼마나 저울의 먼지 같이 보일까! 해가 지고 모든 것

이 저녁 불빛 속에 선명히 나타날 때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길에 서서서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할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없었다면 그 후회가 어떠하겠는가!

잠시만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 있어서나 영원에 있어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 도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포부를 시험해 보고 스스로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기로 하자.

1. 나의 포부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인정하는가?
2. 나의 포부는 인류에 대한 나의 빚을 이행하는가?
3. 나의 포부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와 하늘 나라에서 최대의 보상을 가져다 주는가?

만일 나의 포부가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야심이다. 그러므로 내어버려야 한다.

## 생의 중대한 결정

우리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에 대해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곧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인하여, 이웃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느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의 온 생애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가지 책임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이세상에서의 그의 생애는 비참할 것이며 저 세상에서는 궁핍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자신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 되겠는가?

또한 만일 그가 복음과 상관 없이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는 이웃을 참으로 위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은 멸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가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내어 드린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복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곧 이세상에서의 행복함과 미래에 받을 보상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갖는 큰 비결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다.

먼저 이 비결은 무엇이 우리 자신의 생애에 최선인지를 모른다고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출발한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태도를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내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렘 10:23)

또한 이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것을 바랄 때 하나님의 최선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차선의 것이나 혹은 그 다음 것 아니면 다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을 참으로 믿을진대 우리는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전체(영, 혼, 육)를 주님께 양도함을 말한다. 나의 지체 전부, 나의 가진 것, 나 자신 그대로를 바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주님 앞에 나자신의 뜻을 무조건 포기함을 뜻한다. 이것은 전체로 내어드림을 뜻한다.

벤티 스텐은 순교 당하기 9년 전에 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기의 성경에다 이렇게 썼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나의 모든 욕망과 희망과 야망을, 그것들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포기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애에 대한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저의 생명과 저의 모두를 온전히 당신께 당신의 것으로 드립니다. 저의 모든 친구 교제를 당신의 주관 아래 양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제 마음 속의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를 당신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저의 생애를 위한 당신의 뜻을 어떤 희생물 치르더라도 지금과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옵소서. 제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에일 대학교의 보-든형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 애굽에서 뇌막염으로 죽기 수년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주 예수여 저는 저의 생애에서 손을 떼웁니다. 제 마음의 보좌 위에 좌정 하시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케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옵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은 갯세마네 동산에서 울린 크신 목소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은 주님의 일에 진보를 가지고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야 한다.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때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한번 이 무조건적인 헌신이 결정되면 그것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되풀이 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이 종이라는 것과 계속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잊어서

는 안된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심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커다란 육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가? 어떤 놀랄 만한 감정적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받게 되는가?

그와 같은 경우, 대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은 없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확신하는 고요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님께 한 죄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산제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 후에 오는 평범한 상태에 대해서 실망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생활이 판에 박힌듯 돌아간다. 혹 매일 하는 일이 평범하고 천하기조차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신 그것이다. 자신이 밟는 그 길은 자신을 위해 표해 두신 길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운 지경에서 당신을 신실히 인도하실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은 점점 이상하고 작은 우연의 일치들을 생활속에서 감지(感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이 착 마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으로서는 열어 볼 수 없었던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단히 불분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내어드리는 생활을 뒤돌아 볼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당신의 생활은 매력적인 생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기다림, 길고도 고통스러운 기다림—우리가 참으로 하기 어려운—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이다.

항상 돌아설 위험과 혹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위

형, 또한 비열하게 제단으로부터 기어 내려올 위험성이 있다. 어느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벽에 한 좌우명을 걸어 놓았다. “주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를 당신을 위 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날 그는 조용히 벽 으로 다가가 그 표어를 떼어버렸다. 희생이 너무 컸던 것 이다.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돌이킬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눅 9:62).

그러나 내어드린 생활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후회된 일들은 없을 것이다. 보—든형은 이것을 주저와 후퇴와 후 회가 없는 생활이라 표현했다. 이것은 참으로 값은 지불 하는 생활이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 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자는 다음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 에서 용감히 그리고 정직하게 대면해 보자. 당신은 생애 를 바치는 중대한 결정을 했는가?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며 주님께 속한 생 명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가?

당신을 위해 죽으신 구주께 드릴 희생이 너무 과한 것 이 있는가?

당신이 아직도 가고자 원하지 않는 어떤 장소가 있는 가?

당신은 지금 곧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 의 생명을 드리겠는가? 드리지 않겠는가?

## 직장과 직업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다 음과 같은 말로써 자신을 변호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 참으로 애처로운 생 각이다. 말하자면 이 같은 생각은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

하고 있는 것이다.

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삶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③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을 드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 시간을 바쳐 봉사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더이상 일할 수 없지 않는가?

③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굶주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까닭은 첫째, 우리는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틀린 것이다) 주 예수의 노예는 언제 죽을 것인가 혹은 어떤 모양으로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시는 동안만 사는 것이 다만 중요할 뿐이다. 그 때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둘째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까닭은 모든 신자가 전 시간을 바쳐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 시간을 바친 봉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무실이 봉사장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엌이,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그렇게 한다. 끝으로 그 생각이 잘못된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필수품들이 보장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이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직업의 역할을 잠시 생각해 보자.

①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이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이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창3 : 1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고”(출20 : 9)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 도 말라”(살후 3 : 10)

열심히 일하는 데에 부끄러워 할 것은 없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②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이 주님의 맡기신 일터에 들어 가는 것이므로 분명한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③ 이런 의미에서 직장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복음 전도와 동일하게 평가된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직업이 (또는 직업 선택에 있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다. 만일 주님의 뜻에 참으로 맡기지 않고 아무데나 가고자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없다.

④ 오늘날 흔히 직업을 “세상 직업”이니, “신성한 직업”이니 하고 구분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것이 못된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면 신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 캄벌 모-건은 말하기를, “세상 직업”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마땅히 없애야 할 말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룩하면 그가 하는 수고도 거룩하다고 가르치셨다. 변론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말씀 증거를 하거나 혹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가리켜 “성직”자라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아침에 연장을 담은 가방을 등에 지고 일하러 간다고 할 때 그가 만일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 같은 성스러운 이름으로 부름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하여 그가 목수의 일터에 나아가 재목 하나를 잘랐다면 그 톱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구이다. 그 톱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그러하다. 모든 봉사는 신성한 봉사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주에는 상점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사

량하는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⑤ 신자가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쓰시는 것이 보통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것은 아니나 최소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⑥ 주님은 분명코 신자로 하여금 문제가 많은 사업이나 부정한 사업에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자는 아무도 세속적인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간증을 손상시키는 직업에 있고자 해서는 안된다.

⑦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 생애에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직업은 단지 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것에 관련해서 캐리의 한 말은 타당하다고하겠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나의 사업은 복음 전도이고 구두를 수선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백화점 설립자 존 워너메이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 자신과 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일을 할 시간이 있느냐는 질문에 “왜요, 주일학교는 내 사업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사소한 일들이지요. 55년 동안 나는 주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고 약속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크나큰 점이다! 곧 주의 일을 제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생각하는 것이다. 직업이 부당한 비중을 차지할 때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다. 천막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자 하는 낙타처럼 직업은 때

때로 참 주인을 밀쳐 낸다. 직업은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의 시간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한다. 또 그의 봉사도 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결과 신자는 자신의 특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죠웰이 말한 것과 같이 그는 “곧 없어질 한 기업체의 조그만 직책 담당자”가 될 뿐인 것이다. 이 조그만 직책을 얻기 위해 그는 생애의 최선의 길에서 이탈되는 것이다.

㉔ 직업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여 직장 일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심으로 수행하여 주께 하듯 잘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고용주가 주는 보수에 합당하게 모든 시간을 충실하게 바쳐 일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다시말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야지 고용주의 시간을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장에서 고용주의 요구가 자신의 주님께 대한 책임을 침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를 그 한계로 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자주 부딪친다. 이 미묘한 균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분명하다. 즉 내가 이 문제에 있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히 여겨 직장을 바꿔야 하는 불가피한 일이 생길지라도 나로 구걸하도록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㉕ 또하나 조심해야 할 함정은 불신자들이 해도 잘 해낼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눅 9: 60) 고 말씀하셨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의 입술만이 그리스도

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10 절대로 우리는 더러운 이해 관계 때문에 주 예수님을 위하여 하지 않을 일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 바치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직장에 바치고자 해서는 안된다.

11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의 봉사의 영역을 넓히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된다.

그의 시간은 주님의 일에 점점 더 사용되며 또한 그의 매일매일의 필요도 공급되는 것을 발견한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도 틀림 없는 부르심을 받아 그의 전 시간을 본국에서나 혹은 외국에서 전도나 가르치는 일에 바치게 되기도 한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와 같이 분명할 때에는 일상 필요의 공급에 대해 두려워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부르시면 공급도 하신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 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되지 않는다.”

12 세상이 사업의 성공이나 지위의 영전을 영광으로 여기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것들을 초연한 자세로 대할 수 있으면 좋다.

작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한 공공 기관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소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이상의 것들이 바로 어린 성도들이 자신의 생업을 생각함에 있어 깊이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로 자기를 인도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또 그 직업을 주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데로부터 피하려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자.